

제1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3년 연속 2,000건 상회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2,401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이다. 조정성공률은 64.1%, 본안성공률은 75.7%, 신청효율은 71.5%를 각각 기록했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청구 61.8% 차지

2012년의 경우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은 61.8%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가시화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방안을 도출한 데 이어,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2012년도에 이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정정보도 등의 제목과 내용, 게재지면이나 방송 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면서 단순히 ‘바로잡습니다’ 또는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던 관행은 거의 사라졌으며, 조정대상보도가 게재된 지면이나 방송된 뉴스시간에 피해구제보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편집 실수 등으로 인한 언론사 자체 정정보도와 구분하기 위해,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말미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전

[바로잡습니다]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이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

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고양시가 내린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으며,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8. 09. 11. SBS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후



['K 전 비서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정정보도]

채널A는 지난 7월 17일 프로그램에서 “저축은행 ‘뒷돈’ 받은 청와대 인사 또 있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활동을 벌여 청와대 OO실 행정관이었던 K 전 비서관이 000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 전 비서관은 000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2. 09. 03. 채널A ‘굿모닝 채널 A’ 프로그램]

손해배상 전담중재부 신설 및 운용

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적극적인 조정을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전담하는 1개 중재부(서울제8중재부)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손해배상 전담중재부는 손해배상만

단독으로 청구된 사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에 비중이 있는 병합사건도 선별적으로 심리하며, 활발한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사건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190만 원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중재위원 5인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채택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는 침해법익 또는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의 양태나 내용,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 산정표를 2012년 2월까지 시범 적용하였고, 이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7,400만 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전자조정중재시스템 품질 개선 및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업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조정신청, 각종 문서제출, 결재 등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을 마련, 운영해왔다. 2012년에는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각종 오류를 수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조정신청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언론중재 EYE-NET’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상담과정에서도 적극 안내하였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를 설치하는 등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비율이 향상(14.3%→21.9%) 되었다.

네이버, 신청건수 118건으로 가장 많아

2012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 11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던 다음은 9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해 한국방송공사가 70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했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2011년에 이어 조선일보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자살관련 보도 등 총 259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총 751개 매체를 심의하여 259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1년의 426건에 비해 167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법익침해 기사가 적었던 데다가 위원회가 분기별 · 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 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개선하고 기자들에게 시정권고 관련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제1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2,40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전년도에 비해 277건(13%)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원회가 연간 접수 · 처리한 조정건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9년에 1,500건을 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2,000건 이상이었던.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08. 1. 1. ~ 2012. 12. 31.)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청 구 건 수	954	1,573	2,205	2,124	2,401
전년대비 증감	-89	619	632	-81	277

2. 중재부별 현황

2012년 중재부별 접수현황을 보면 1,832건을 접수 · 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76.3%를 차지했고, 경기중재부 119건(5.0%), 광주중재부 92건(3.8%), 경남중재부 80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매체수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 및 광주 지역의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 도 \ 중재부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서울중재부	1,627	(73.8)	1,465	(69.0)	1,832	(76.3)	4,924	(73.2)
부산중재부	59	(2.7)	36	(1.7)	50	(2.1)	145	(2.2)
대구중재부	31	(1.4)	26	(1.2)	29	(1.2)	86	(1.3)
광주중재부	77	(3.5)	49	(2.3)	92	(3.8)	218	(3.2)

연도 중재부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대전중재부	42	(1.9)	33	(1.6)	53	(2.2)	128	(1.9)
경기중재부	120	(5.4)	118	(5.6)	119	(5.0)	357	(5.3)
강원중재부	28	(1.3)	18	(0.8)	11	(0.5)	57	(0.8)
충북중재부	35	(1.6)	47	(2.2)	55	(2.3)	137	(2.0)
전북중재부	49	(2.2)	28	(1.3)	47	(2.0)	124	(1.8)
경남중재부	89	(4.0)	174	(8.2)	80	(3.3)	343	(5.1)
제주중재부	48	(2.2)	130	(6.1)	33	(1.3)	211	(3.1)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3. 청구권별 현황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401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23건(50.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794건(33.1%), 반론보도청구 315건(13.1%), 추후보도청구 69건(2.9%) 순이었다. 청구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3년간 평균 비율이 51.1%로 나타났다. 다른 청구권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청인들이 신청접수 단계에서 정정보도가 가장 적합한 피해구제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33.1%로 정정보도청구 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은 35.2%로 나타났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청구명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1,211	(54.9)	1,004	(47.2)	1,223	(50.9)	3,438	(51.1)
반 론	171	(7.8)	168	(8.0)	315	(13.1)	654	(9.7)
추 후	50	(2.3)	148	(7.0)	69	(2.9)	267	(4.0)
손 배	773	(35.1)	804	(37.8)	794	(33.1)	2,371	(35.2)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4.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2년도에는 전체 조정청구 건수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1,393건(5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단체가 310건(12.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체 306건(12.7%), 국가기관 96건(4.0%), 공

공단체 92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청구비율은 2011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며,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의한 청구는 최근 3년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신청인 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개 인	1,284	(58.2)	1,283	(60.5)	1,393	(58.0)	3,960	(58.8)
국가기관	66	(3.0)	78	(3.7)	96	(4.0)	240	(3.6)
지 자 체	66	(3.0)	71	(3.3)	76	(3.2)	213	(3.2)
공공단체	58	(2.6)	55	(2.6)	92	(3.8)	205	(3.0)
일반단체	293	(13.3)	252	(11.9)	310	(12.9)	855	(12.7)
종교단체	2	(0.1)	19	(0.9)	16	(0.7)	37	(0.5)
기 업 체	329	(14.9)	305	(14.3)	306	(12.7)	940	(14.0)
언 론 사	87	(3.9)	31	(1.4)	85	(3.5)	203	(3.0)
교육기관	20	(0.9)	30	(1.4)	27	(1.2)	77	(1.2)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5.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 유형별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945건(39.4%), 신문 665건(27.7%), 인터넷뉴스서비스 454건(18.9%), 방송 243건(10.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순이었다.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가 240건이 늘어난 데 반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56건이 줄어들었다.

포털에 대한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은 주요 포털사들이 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게재하는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의 아웃링크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한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포털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보다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란, 야후 등 주요 포털사들이 각각 2012년 7월 말과 12월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뉴스서비스도 함께 중단한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 1-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매체 유형	연도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신 문	일간신문	354	(16.1)	405	(19.1)	496	(20.7)	1,255	(18.6)
	주간신문	186	(8.4)	181	(8.5)	169	(7.0)	536	(8.0)

1)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언론사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됨

방 송	189	(8.6)	250	(11.8)	243	(10.0)	682	(10.1)
잡 지	24	(1.1)	9	(0.4)	11	(0.5)	44	(0.7)
뉴스통신	42	(1.9)	62	(2.9)	83	(3.5)	187	(2.8)
인터넷신문	567	(25.7)	705	(33.2)	945	(39.4)	2,217	(32.9)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38.1)	510	(24.0)	454	(18.9)	1,805	(26.8)
기 타	2	(0.1)	2	(0.1)			4	(0.1)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표 1-6] 2012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청구 건수	매체 유형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터넷 신 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지 상 파		종합 유선방송	종합 편성채널				
					T V	라디오						
2,401		307	189	169	156	3	27	57	11	83	945	454
(100.0)		(12.8)	(7.9)	(7.0)	(6.5)	(0.1)	(1.0)	(2.4)	(0.5)	(3.5)	(39.4)	(18.9)

* () 안의 숫자는 %

6. 침해 유형별 현황

2012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2,110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87.9%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 128건(5.3%), 사생활 침해 101건(4.2%), 성명권 침해 4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의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청구한 건수와 비율은 증가했다.

[표 1-7]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침해 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명예훼손	1,995	(90.5)	2,030	(95.6)	2,110	(87.9)	6,135	(91.2)
신용훼손	20	(0.9)	—	—	—	—	20	(0.3)
재산상 손해	—	—	8	(0.4)	10	(0.4)	18	(0.3)
초상권 침해	109	(4.9)	39	(1.8)	128	(5.3)	276	(4.1)
음성권 침해	3	(0.1)	—	—	8	(0.3)	11	(0.2)
성명권 침해	4	(0.2)	22	(1.0)	43	(1.8)	69	(1.0)
사생활 침해	20	(0.9)	24	(1.1)	101	(4.2)	145	(2.2)
기 타	54	(2.4)	1	(0.1)	1	(0.1)	56	(0.7)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273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236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를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한 경우는 9건(3.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21건(7.7%)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2. 1. 1. ~ 2012.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236 (86.4)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9 (3.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1 (7.7)
기 타	7 (2.6)
계	273 (100)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2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626건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고, 정치·선거 분야가 207건으로 8.6%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연예분야 179건(7.5%), 경제·산업분야가 157건(6.5%), 교육분야 48건(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조정대상보도 분야	청구건수
정치·선거	207 (8.6)
국방·외교	7 (0.3)
경제·산업	157 (6.5)
사회(사건/사고/고발)	1,626 (67.7)
보건·복지	47 (2.0)
스포츠·연예	179 (7.5)
레저·생활	3 (0.1)
환경	23 (1.0)
종교	14 (0.6)
노동	29 (1.2)
교육	48 (2.0)
미디어	45 (1.9)
기 타	16 (0.6)
계	2,401 (100)

* () 안의 숫자는 %

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2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내용을 제공 또는 매개한 포털을 제외한 조정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775건으로 88.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기사가 97건(4.8%), 오피니언 48건(2.4%) 순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조정대상보도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1,775 (88.1)
사 설	46 (2.3)
오피니언	48 (2.4)
인터뷰	11 (0.5)
탐사·심층·기획기사	97 (4.8)
사 진	34 (1.6)
가 십	1 (0.1)
기 타	3 (0.2)
계	2,015 (100)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보도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관련 보도가 278건으로 7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62건(16.1%),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28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1]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 스	278 (72.0)
시사고발	62 (16.1)
교양정보	28 (7.3)
연예·스포츠	11 (2.8)
다큐멘터리	2 (0.5)
기 타	5 (1.3)
계	386 (100)

* () 안의 숫자는 %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2년 한 해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조정신청사건 접수 방법은 전자우편(E-메일 1250건,

12.1%)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은 방문이나 우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전자우편 접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전자조정중재시스템 도입으로 가능해진 전자문서 접수, 즉 ‘언론중재 Eye-Net’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2011년 304건(14.3%)에서 2012년 525건(21.9%)으로 증가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접수 유형	2010		2011		2012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방 문	483	(21.9)	409	(19.3)	360	(15.0)
우 편	233	(10.6)	143	(6.7)	114	(4.7)
전자우편	1,205	(54.6)	1,221	(57.5)	1,250	(52.1)
전자문서	-	-	304	(14.3)	525	(21.9)
구 술	284	(12.9)	47	(2.2)	152	(6.3)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 2011. 1. 1.부터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가 가능해짐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2년 한 해 동안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972건(40.5%), 조정성립 805건(33.5%), 조정불성립결정 427건(17.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42건(5.9%), 기각 44건(1.8%), 각하 1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성립은 2011년 725건(34.1%)에 이어 2012년 805건(33.5%)으로 나타나, 전체 처리건수 중 1/3 이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하의 경우 2011년 951건(44.8%), 2012년 972건(40.5%)으로 여전히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조정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한 다수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취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불성립결정은 전년도(13.4%)에 비해 다소 증가(17.8%)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청구비용이 높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사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142건(동의 76건, 이의 66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5.9%를 차지해 지난해(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건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결과와 관련, 위원회는 2011년부터 기존 신청효율 외에 조정성공률과 본안성공률 개념을 새로 도입해 피해구제 지표로 삼고 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조 정 성공률	본 안 성공률	신 청 효 율
			동 의	이 의				심리 전	심리 중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754 (617)	377 (274)	79.0%	88.0%	79.2%
	%	28.6	4.9	1.8	7.1	6.2	0.1	34.2	17.1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506 (382)	445 (298)	70.9%	81.7%	71.3%
	%	34.1	3.0	1.9	13.4	2.1	0.7	23.8	21.0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592 (536)	380 (251)	64.1%	75.7%	71.5%
	%	33.5	3.2	2.7	17.8	1.8	0.5	24.7	15.8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text{※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times 100$$

$$\text{※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times 100$$

$$\text{※ 신청효율} = \frac{\text{신청유�효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조정성공률

조정성공률이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이나 신청내용 상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각하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한 사건 중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 모두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은 2010년 79.0%, 2011년 70.9%, 2012년 64.1%로 나타났다. 2012년 조정성공률이 2011년에 비해 6.8% 낮아진 이유는 조정성립의 비율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2]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취하 건수(B)	조정건수(A-B)	조정성공건수(C)	조정성공률 C/(A-B)
2010	2,205	1,269	936	739	79.0%
2011	2,124	1,009	1,115	790	70.9%
2012	2,401	1,027	1,374	881	64.1%
계	6,730	3,305	3,425	2,410	70.4%

3.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청구사건에서 기각·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건수를 제외한 조정심리에 부처진 사건 중에서 조정성립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공건수에는 조정성공건수 외에도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과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을 살펴보면, 2010년 88.0%, 2011년 81.7%, 2012년 75.7%로 나타났다. 3년 동안 본안성공률이 계속 하락한 이유는 조정성공률 하락과 마찬가지로 조정불성립결정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3]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A)	기각·각하· 심리전 취하건수(B)	본안심리건수 (A-B)	본안성공건수 (C)	본안성공률 C/(A-B)
2010	2,205	892	1,313	1,156	88.0%
2011	2,124	564	1,560	1,275	81.7%
2012	2,401	647	1,754	1,327	75.7%
계	6,730	2,103	4,627	3,758	81.2%

4. 신청효율

신청효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여부 및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해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 신청효율이다.

신청효율은 2010년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71.3%, 2012년에는 71.5%를 기록했다. 위원회가 양적인 신청효율보다 피해구제보도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2011년에는 신청효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소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가시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2012년에 신청효율이 반등한 것은 언론사들이 피해구제보도문의 질적 향상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외 홍보지에도 수록하였으며 언론사 대상 교육 시 피해구제보도문의 적절한 예를 제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와 언론중재 EYE-NET에 개선된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효율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신청유효건수 (C)	신청효율 C/(A-B)
2010	2,205	138	2,067	1,637	79.2%
2011	2,124	58	2,066	1,473	71.3%
2012	2,401	55	2,346	1,678	71.5%
계	6,730	251	6,479	4,788	73.9%

5.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2년에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97.1%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반론보도(78.3%), 손해배상(7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청구이므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판결문 등에 의한 입증이 용이하여 언론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2-5]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정정	1,211	337	74	20	(1)	87	(4)	66	1	626	(489)	79.3	87.7	79.1
	반론	171	52	10	1		13		31		64	(38)	81.6	85.9	71.4
	추후	50	23	1	1		1		2		22	(20)	92.3	96.6	91.7
	손배	773	218	24	18	(1)	56	(1)	38		419	(344)	76.6	87.1	8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정정	1,004	375	40	23	(1)	150		25	5	386	(249)	70.6	79.7	68.3
	반론	168	72	6			28		7		55	(33)	73.6	78.8	68.9
	추후	148	23	1	1	(1)	7			2	114	(108)	75.0	86.3	91.1
	손배	804	255	18	16	(1)	100		12	7	396	(290)	70.2	81.6	71.8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정정	1,223	450	40	35		238	(6)	17	3	440	(338)	64.2	75.5	69.3
	반론	315	113	7	3		35	(2)	11	5	141	(112)	75.9	84.0	78.3
	추후	69	2	2			1				64	(63)	80.0	90.9	97.1
	손배	794	240	27	28		153	(2)	16	3	327	(274)	59.6	72.4	70.1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78.6%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75.0%), 국가기관(72.6%), 개인(70.1%) 등의 순이었다. 회사와 일반단체, 교육기관의 신청효율은 각각 60.3%, 65.2%, 66.7%로 평균 신청효율(71.5%) 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 유형	청 구 건 수	처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 의	같은하는 결정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개 인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0.3	89.0	83.5	
	단 체	국가기관	66	22	11	1	5				27	(18)	84.6	91.5	77.3	
		지자체·공공단체	124	33	8	2	17		1		63	(44)	68.3	79.3	69.1	
		일반단체	293	108	30	7	37		28		83	(60)	75.8	83.8	74.7	
		종교단체	2	2									100.0	100.0	100.0	
		회사	416	119	21	10	20	(1)	4		242	(163)	82.4	92.6	73.8	
		교육기관	20	11			6				3	(1)	64.7	64.7	6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개 인	1,283	427	37	31	(2)	181		30	12	565	(455)	68.6	79.2	74.2	
	단 체	국가기관	78	21	5	4	(1)	17			31	(12)	55.3	74.2	50.0	
		지자체·공공단체	126	56	6	2	11		1		50	(44)	82.7	88.5	84.8	
		일반단체	252	112	4	2	35		11	2	86	(22)	75.8	82.5	57.7	
		종교단체	19	5	2		2				10	(10)	77.8	81.8	89.5	
		회사	336	94	11	1	36		2		192	(130)	73.9	82.3	70.4	
		교육기관	30	10			3				17	(7)	76.9	85.7	56.7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개 인	1,393	434	39	41		206	(1)	26	6	641	(555)	65.7	77.9	70.1	
	단 체	국가기관	96	40	6	3	12		1		34	(23)	75.4	86.0	72.6	
		지자체·공공단체	168	70	7		30	(1)			61	(48)	72.0	76.9	75.0	
		일반단체	310	113	15	2	81	(4)	14		85	(61)	60.7	68.1	65.2	
		종교단체	16	4			2		2		8	(7)	66.7	84.6	78.6	
		회사	391	134	9	20	88	(4)	1	5	134	(85)	57.0	72.2	60.3	
		교육기관	27	10			8				9	(8)	55.6	61.9	66.7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2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연예인이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이 1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 특정 연예인이 다수의 매체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피해가 구제되자 신청을 일괄하여 취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 학생(89.1%), 문화예술인(87.9%), 회사원(84.6%) 등이 비교적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다.

한편 신청효율이 낮은 직업군을 살펴보면 조정건수가 적은 주부와 공공기관장, 법조인, 금융업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시민활동가가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이 0.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청이 자진취하, 또는 신청인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취하간수된 결과이다. 그밖에 종교인(30.4%), 언론인(51.4%), 국회의원(59.2%) 등의 신청효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직 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국회의원	49	18				15			16	(11)	54.5	63.4	59.2	
법조인	5			4					1	(1)	0.0	100.0	20.0	
공무원	71	29				15			27	(23)	65.9	71.7	73.2	
군인·경찰	46	23	5			5			13	(9)	84.8	88.4	80.4	
기초광역단체장·의원	47	16		2		9			20	(19)	59.3	75.7	74.5	
정당정치인	71	20				16	(1)	2	33	(25)	55.6	66.7	66.7	
의료인	38	4	2	4		2		3	23	(19)	50.0	89.5	71.4	
문화예술인	140	30				9			101	(93)	76.9	82.7	87.9	
종교인	23	7		4		12					30.4	47.8	30.4	
회사원	203	41	10	8		18		4	4	118	(114)	66.2	80.4	84.6
언론인	51	14	3	4		18			12	(9)	43.6	64.0	51.0	
교육자	84	34	4			13		5	28	(14)	74.5	82.9	65.8	
개인사업가	289	115	10	7		38		1	2	116	(104)	73.5	83.3	80.1
금융업종사자	5	1				2		2			33.3	33.3	33.3	
연예인	76	2							74	(74)	100.0	100.0	100.0	
학 생	55	32	1			6			16	(16)	84.6	87.5	89.1	
시민활동가	24					4		6	14		0.0	0.0	0.0	
공공기관장	2					2					0.0	0.0	0.0	
조합대표협회장	5					4			1		0.0	0.0	0.0	
주부	10	3		2		2		2	1	(1)	42.9	71.4	50.0	
무직	6	5				1					83.3	83.3	83.3	
알 수 없음	41	15	4			3		1	18	(16)	86.4	91.2	87.5	
기타	52	25		6		12			9	(7)	58.1	72.7	61.5	
계	1,393	434	39	41		206	(1)	26	6	641	(555)	65.7	77.6	70.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잡지(81.8%), 인터넷 신문

(74.6%), 뉴스통신(70.4%), 신문(61.9%), 방송(61.4%)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기반 매체가 지면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신문·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 2-8]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 의	같은하는 결정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신 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78.0	85.3	70.9
	방 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66.7	73.2	60.9
	잡 지	24	8	3			10	(1)			3		52.4	58.3	50.0
	뉴스통신	42	10						7		25	(18)	100.0	100.0	80.0
	인터넷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82.4	91.3	80.7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88.5	96.2	88.7
	기 타	2									2		0.0	0.0	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신 문	586	244	19	13		95		22	5	188	(91)	70.9	79.6	63.3
	방 송	250	75	11	6		61		9	4	84	(33)	56.2	68.9	50.2
	잡 지	9	5	1			3						66.7	66.7	66.7
	뉴스통신	62	21	2	2	(2)	7		1		29	(14)	71.9	83.3	63.9
	인터넷신문	705	230	22	19	(1)	81		10	4	339	(254)	71.6	82.9	73.4
	인터넷뉴스서비스	510	150	10			38			1	311	(288)	80.8	89.8	88.0
	기 타	2							2				0.0	0.0	0.0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신 문	665	265	27	27		163	(4)	9	5	169	(107)	60.6	71.3	61.9
	방 송	243	78	10	10		63		10		72	(55)	54.7	68.5	61.4
	잡 지	11	7				2				2	(2)	77.8	80.0	881.8
	뉴스통신	83	23	9			18	(2)	2		31	(23)	64.0	71.0	70.4
	인터넷신문	945	348	26	23		157	(4)	18	5	368	(310)	67.5	76.7	74.6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84	4	6		24		5	1	330	(290)	74.6	90.0	84.4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9.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2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97.0%)와 성명권 침해(95.3%), 초상권 침해(92.4%) 등이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고, 이에 반해 가장 청구건수가 많은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낮은 68.9%를 나타냈다. 사생활이나 성명권, 초상권 등은 명예훼손에 비해 침해의 인정 여부

가 좀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9]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의	같은 결정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명예훼손	1,995	591	107	39	(2)	144	(5)	87	1	1,026	(801)	79.2	88.0	79.0
	신용훼손	20					2		1		17	(13)	0.0	0.0	68.4
	초상권 침해	109	27	1			10		12		59	(54)	73.7	77.3	84.5
	음성권 침해	3	1		1						1	(1)	50.0	100.0	66.7
	성명권 침해	4									4	(2)	0.0	0.0	50.0
	사생활 침해	20	3	1			1		11		4	(4)	80.0	80.0	88.9
	기 타	54	8						26		20	(16)	100.0	100.0	85.7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명예훼손	2,030	697	60	35	(3)	272		40	14	912	(656)	71.1	80.7	71.7
2011	초상권 침해	39	9	3	1		3		3		20	(15)	75.0	84.2	75.0
	음성권 침해	3					1				2	(2)	0.0	66.7	66.7
	성명권 침해	22	3	2	3		9				5		29.4	52.6	22.7
	사생활 침해	24	15		1				1		7	(5)	93.8	100.0	87.0
	재산상 손해	5									5	(2)	0.0	0.0	40.0
	기 타	1	1										100.0	100.0	100.0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명예훼손	2,110	765	65	60		420	(10)	34	10	756	(583)	63.4	74.8	68.9
	초상권 침해	128	23	5	3		4		9	1	83	(81)	80.0	90.7	92.4
2012	음성권 침해	8	3				1		1		3	(1)	75.0	83.3	57.1
	성명권 침해	43	1		2						40	(40)	33.3	100.0	95.3
	사생활 침해	101	13	6	1		2				79	(79)	86.4	94.3	97.0
	재산상 손해	10									10	(2)	0.0	100.0	20.0
	기 타	1									1	(1)	0.0	100.0	100.0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한편,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일간지, 주간신문, 잡지 등의 매체의 경우 명예훼손이 95.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초상권, 음성권 등 명예훼손 외의 인격권 침해가 4.3%로 나

타났다. 방송은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가 13.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15.5%를 차지하였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의 비율이 지면 매체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주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 편성채널은 초상권·음성권·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사건이 전체의 24.6%(57건 중 14건)로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2. 1. 1. ~ 2012. 12. 31.)

매체 유형	구 분 매 체 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 앙 일 간 지	경향매일	1	1							1					
	경향신문	25	25							10	2	7			6
	국민일보	8	8							2	1	3			2
	내일신문	1	1							1					
	동아일보	42	41			1				18	6	7	2	2	7
	문화일보	9	9								2	4		1	2
	서울신문	10	10							2		1	2		5
	세계일보	7	7							4		2			1
	조선일보	65	61	2			2			21	4	23	2		15
	중앙일보	25	23				2			8	2	4		2	9
	한겨레	39	39							9	5	15			10
	한국일보	14	11				3			4		1			9
	소계	246	236	2		1	7			80	22	67	6	5	66
지 역 일 간 지	내외일보	3	3							3					
	서울일보	1	1							1					
	신아일보	1	1									1			
	아시아일보	3	3							3					
	아시아투데이	4	4							3		1			
	국제신문	6	5	1						2		1	2		1
	부산일보	5	5							1	1	1			2
	울산신문	1	1												1
	울산제일일보	3	3							3					
	울산광역매일	5	5							3					2
	경도일보	2	2							2					
	경북일보	3	2			1				1		2			
	경안일보	3	3							1		2			
	대구일보	1	1												1

매체 유형	구 분 매 체 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매일신문	3	2	1											3
	영남일보	2	1					1							2
	광남일보	1	1							1					
	광주일보	2	2								1				1
	남도일보	2	2							1					1
	무등일보	2	2							1					1
	전광일보	4	4							2		1			1
	전남매일	1	1												1
	금강일보	4	4							3					1
	대전투데이	4	4							4					
	중도일보	2	2							2					
	충남일보	8	8								2				6
	충민일보	2	2								2				
	충청투데이	5	5							4					1
역	세종매일	2	2							2					
	경기도민일보	1	1									1			
	경기신문	8	8							5		2			1
	경기일보	2	2							1					1
	경인일보	9	9							2		4			3
	경인종합일보	2	2												2
	인천신문	3	3									2			1
	인천일보	9	9							2		2			5
	전국매일	2	2							1	1				
	중부일보	9	9							4		3			2
	강원일보	3	3							3					
	동양일보	3	3							1		2			
	중부매일	5	5									4			1
	충청매일	2	2									1			1
간	충청일보	3	3							1		2			
	충청타임즈	3	3									2			1
	새전북신문	5	5							1		4			
	전북매일신문	2	2							2					
	전북일보	5	5							2		2			1
	전북타임즈	3	3							3					
	전주일보	2	2								2				
	경남도민신문	1	1							1					
	경남도민일보	4	4												4
	경남매일	5	4	1						4		1			

매체유형	구 분 매 체 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일 간 지	경남신문	4	4							1		2			1
	경남연합일보	1	1							1					
	경남일보	2	2									2			
	전북일보	1	1												1
	창원일보	2						2							2
	한남일보	4	4							3					1
	한라일보	2	2							2					
	소계	192	185	3		1		3		83	9	45	2		53
경 제 지	매일경제	6	6									2			4
	머니투데이	7	7							1		4			2
	서울경제	6	6							2					4
	파이낸셜뉴스	4	4							3					1
	한국경제	15	13				2			2	1	2			10
	헤럴드경제	4	4							4					
	소계	42	40				2			12	1	8			21
외 국 언 론 간 지	The Korea Herald	1	1												1
	소계	1	1												1
특 수 일 간 지	디지털타임스	2	2							2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2	2									2			
	소계	4	4							2		2			
무 료 일 간 지	am7	2	2							2					
	데일리 노컷뉴스	4	2				2				2				2
	메트로	3	3												3
	이데일리(신문)	2		2							1	1			
	소계	11	7	2			2			2	3	1			5
중 앙 방 송	KBS-1·2TV	4	4									3			1
	KBS-1TV	43	43							12		15	2		14
	KBS-2TV	16	12	3			1			7	2	4			3
	MBC-TV	41	37	2	1		1			7	5	19	1		9
	SBS-TV	14	12	1			1			4		4	1		5
	소계	118	108	6	1		3			30	7	45	4		32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1	1							1					
	부산MBC-TV	7	7							1		2			4
	전주KBS-1TV	4	4							2			1		1
	제주MBC-TV	4	4							2		2			
	진주MBC-TV	2	2									2			
	청주MBC-TV	1	1												1
	춘천KBS-1TV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거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방송	경기방송R	3	3							1		2			
	소계	24	24							9		8	1		6
지역민방	CJB-TV	4	1	3						3					1
	G1-TV	2	2							2					
	KBC-TV	1		1											1
	KNN	2	2										1		1
	OBS경인TV	5	5								3				2
	TJB-TV	1	1												1
	UBC	2	2							1		1			
	소계	17	13	4						6	3	1	1		6
케이블	CBS-TV	1	1									1			
	CTS기독교TV	2	2									2			
	KC-TV	2	2							2					
	TVN	2		2						1	1				
	YTN	13	12		1					6	2	1			4
	티브로드 서울뉴스	1	1												1
	티브로드 중부방송	1	1												1
	한국경제TV	1	1									1			
	현대HCN충북방송	1			1							1			
	엠비씨에브리원(MBC Every1)	1		1											1
	hello tv 금정방송	1	1												1
	KBS drama	1	1												1
	소계	27	22	3	2					9	3	6			9
종합편성채널	jtbc	13	10		2			1		4			3		6
	MBN	14	9	4	1					9	1				4
	TV조선	16	15	1						7	2	3			4
	채널A	14	9	1			4			4	4		1		5
	소계	57	43	6	3		4	1		24	7	3	4		19
뉴스	뉴스1코리아	11	9	1		1				2	3	4			2
	뉴스1	32	31	1						10		7			15
	뉴스1(경남)	5	5							1		2			2
	아시아뉴스통신	9	9								4	2			3
	아시아뉴스통신(경남)	3	3							1		2			
	연합뉴스	20	19	1						7	2	1	2		8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1	1							1					
	뉴스1코리아 전북	1		1						1					
	NSP통신	1		1											1
	소계	83	77	5		1				23	9	18	2		31

매체유형	구 분 매 체 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 사 주 간 신 문	대전투데이	2	2								2				
	호남매일	2	2							2					
	중앙매일	2	2								2				
	충청신문	2	2								2				
	민주신문	2	2							1	1				
	일요서울	2	2									1			1
	주간한국	7	7							6					1
	중앙Sunday	3	3							1		1			1
	소계	22	22							10	7	2			3
지 역 주 간 신 문	순창신문	2	2							2					
	안성신문	2	2							2					
	이북도민연합신문	1	1										1		
	성동저널	2	2									2			
	은평뉴스비전	1	1							1					
	주간 고향신문	1	1							1					
	나주뉴스	2	2												2
	나주투데이	1	1							1					
	담양신문	4	4							2	1	1			
	장선군민신문	3	3							3					
	전남희망신문	3	3							3					
	삼군신문	3	3							3					
	장성사람들	1	1												1
	목포시민신문	2	2							2					
	우리군민신문	3	3								3				
	놀이신문	2	2							2					
	충남시사신문	2	2									2			
	부평신문	1	1							1					
	안산미래신문	1	1									1			
	안산신문	1	1									1			
	안산정론신문	1	1									1			
	안산타임스	1	1							1					
	여주시민신문	2	2							1		1			
	평택시사신문	2	2							1		1			
	강화뉴스	2	2									2			
	강원신문	2	2									2			
	보은신문	3	3							2					1
	충청리뷰	3	2	1						1					2
	군산신문	4	4							4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서해타임즈	2	2									2			
	소통신문	2	2								1				1
	해피데이고창	1	1								1				
	더함안신문	2	2							1					1
	서경신문	2						2							2
	고성미래신문	2	2									2			
	소계	69	66	1				2		34	6	18	1		10
특 수 주 간 신 문	서울문화투데이	1	1							1					
	대한급식신문	3	3							3					
	도시재생신문	1	1							1					
	마케팅경제신문	2	2									2			
	미디어오늘	6	6							4					2
	부천신문	2	2									2			
	서울파이낸스	2					2								2
	수산신문	2	2							2					
	어패럴뉴스	1	1												1
	여행미디어	2	2							2					
	전기신문	2	2								2				
	청년의사	2	2							2					
	한국기독교신문	2	2							1		1			
	한국농정	2	2									2			
	한국섬유신문	1	1							1					
	한신의힘	1	1							1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주간파주신문	5	5							1		4			
	크리스천 포커스	2	2							2					
	코리아리포트	2	2							2					
	덴탈포커스	2	2								2				
	세무사신문	2	2							1	1				
	전국언론노조KBS본부노부	2	2									2			
	서울구민신문	2	2												2
	한국관광신문BTMICE	2	2									2			
	대한변협신문	2	2												2
	나무신문	2	2							2					
	소계	56	54				2			27	5	15			9
시 사 주 간 지	매경이코노미	3	2			1				2					1
	시사IN	4	4							2		2			
	시사저널	6	6							4	1	1			
	주간경향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사주간지	주간동아	3	3							1		2			
	주간조선	2	2							2					
	한겨레21	3	3							3					
	소계	22	21			1				15	1	5			1
잡지	레이디경향	2	2							2					
	신동아	4	4							4					
	월간조선	1	1												1
	월간중앙	3	3									2			1
	함께걸음	1	1							1					
	소계	11	11							7		2			2
인터넷	데일리안 광주전라	2	2												2
	아이컬쳐뉴스	3	3							1					2
	소비자연합타임즈	2	2												2
	인터넷코리아리포트	2	2							2					
	인터넷소통신문	2	2								1				1
	인터넷레이디경향	2	2							2					
	인터넷이코노미세계	2	2												2
	데일리서울파이낸스	1	1												1
	양주동두천닷컴	1	1							1					
	경인일보닷컴	5	5									4			1
	시티데일리	2					2								2
	인터넷덴탈포커스	2	2								2				
	인터넷보은신문	3	3							2					1
	인터넷주간조선	2	2							2					
	인터넷안성신문	2	2							2					
	CBC뉴스	2					2								2
	CNBNEWS	7	4	1			2			2					5
	CNBNEWS광주전남본부	2	2							2					
	CNN21	2	2									2			
	CTN	1	1												1
신문	e논산신문	2	2							2					
	e수원뉴스	2	2												2
	KJB방송	2	2									2			
	TV리포트	1		1											1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1	1							1					
	거제타임즈	1	1												1
	경제투데이	3	2	1											3
	노컷뉴스	26	23			1	2			11	3	4	1		7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감응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뉴데일리	1		1											1
	뉴스앤조이	5	5									3			2
	뉴스엔	2					2								2
	뉴스웨이	3	1				2			1					2
	뉴스웨이호남본부	4	4							2	2				
	뉴스천지	1		1											1
	뉴스타운	4	4							4					
	뉴스토마토	5	5												5
	뉴스핍	3	2	1											3
	대전시티저널	3	3							3					
	더벨	6	6							2		3			1
터	더사이언스	2	2												2
	더한국타임즈	2	2												2
	데일리안	11	8	1			2			3			3		5
	데일리팜	2	1	1								2			
	디트뉴스24	2	2									2			
	로이십사(LAW24)	2	2												2
	마이데일리	4	3			1				1					3
	메디컬투데이	1		1											1
	메디파나뉴스	1	1												1
	문화저널21	2	1	1								1			1
	미디어스	11	11							5					6
문	민주일보	2					2								2
	민중언론 참세상	1	1							1					
	민중의소리	7	4	1			2			1		2			4
	뉴스앤뉴스	8	8							6		2			
	브레이크뉴스	4	3	1						2					2
	빅뉴스	2	2												2
	소비자가만드는신문	3		1			2								3
	스타엔	1				1									1
	스포츠서울TV	1		1											1
	시민의소리	2	2							1	1				
	아츠뉴스	1		1											1
이	에이블뉴스	2	2												2
	엑스포츠뉴스	1		1											1
	오마이뉴스	25	24			1				10	2	6			7
	올인코리아	1	1												1
	이데일리(인터넷)	4		2			2				1				3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감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이슈제주	2	2							2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2	2												2
	제주의소리	6	6							4					2
	제주인터넷뉴스	2	2							2					
	제주투데이	2	2							2					
	조선비즈닷컴	1	1								1				
	조이뉴스24	1				1									1
	충북인뉴스	3	2	1						1					2
	컨슈머타임즈	4	1	1			2								4
	코메디닷컴	2	2							2					
	통영인터넷뉴스	1					1				1				
	티브이데일리	3	2	1						2					1
	파인뉴스	3	3							1		2			
	프런티어타임스	2	1	1											2
	프레시안	13	13							3		9	1		
	프로슈머	2					2								2
	한강타임스	2	2							2					
	한국취업신문	1	1												1
	헬스코리아뉴스	2					2								2
	익산시민뉴스	1	1									1			
	포커스인아시아	1	1												1
	표수	2	2									2			
	KNB방송	1	1							1					
	구리넷	5	5							2					3
	전남인터넷신문	1	1									1			
신문	스타뉴스	5	4			1				2		1			2
	디펜스21	2	2							2					
	포바이포 아웃도어뉴스	2	2									2			
	e상조뉴스	5	5							5					
	enews24	2	1	1										1	1
	경남타임즈	2	2							1					1
	인터넷 충남시사신문	2	2									2			
	폭로닷컴	2	2							2					
	성남일보	2	2							2					
	푸드투데이	1	1							1					
	호남뉴스24	1	1							1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2	2							2					
신문	조세일보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감응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365	1		1											1	
	오에스이엔	1				1									1	
	이버즈	1		1											1	
	무비조이	1		1											1	
	DKBnews(도깨비뉴스)	1		1											1	
	더블유스타뉴스	1		1											1	
	프레스바이플	1		1											1	
	CBSi	1	1									1				
	e머니투데이	31	30	1						7	1	13			10	
	논산투데이	2	2							2						
	뉴스한국닷컴	2	2									1			1	
	동아닷컴	44	39	2		1	2			20	7	5			12	
	로컬세계닷컴	1	1												1	
	매경닷컴	15	11	1		1	2			5					10	
	세계닷컴	12	8	2			2			5		2	1		4	
	스포츠서울닷컴	3	1	2						1					2	
	아시아경제닷컴	8	6	2						3	1		1		3	
	아시아투데이닷컴	18	15	1			2			4					14	
	아이(i)-이투데이	5	2			1	2			2					3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7	7							3	1				3	
	온라인중앙일보	25	22			1	2			6	2	3		1	13	
	신문	이뉴스투데이	2	1	1											2
		이투데이	4	1			1	2				1				3
인터넷 경기일보		3	2			1				1					2	
경북매일신문		1	1							1						
인터넷 경안일보		3	3							1		2				
인터넷 경향매일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22	21			1				8	3	4			7	
인터넷 광남일보		2	1				1			1					1	
인터넷 광주일보		1	1								1					
인터넷 금강일보		2	2							1					1	
인터넷 기독일보		2	2												2	
인터넷 나주투데이		1	1							1						
인터넷 남도일보		2	2							1					1	
인터넷 내외일보	3	3							3							
인터넷 뉴스포스트	2					2								2		
인터넷 대구신문	2	2							2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	2							2					
	인터넷 매일신문	1				1									1
	인터넷 부천신문	4	4							2		2			
	인터넷 부평신문	1	1							1					
	인터넷 새전북신문	3	3							1		2			
	인터넷 서울경제	7	6	1						2				1	4
	인터넷 서울신문	9	8	1						3					6
	인터넷 스포츠경향	3	2			1									3
	인터넷 스포츠조선	3	2	1											3
	인터넷 시사저널	6	6							4	1	1			
	인터넷 신아일보	1	1									1			
	인터넷 엠티엔(MTN)	2					2								2
	인터넷 울산신문	1	1												1
	인터넷 일간스포츠	1		1											1
	인터넷 일요서울	2	1			1						1			1
	인터넷 일요시사	7	5				2			4					3
	인터넷 일요신문	1		1											1
	인터넷 전기신문	2	2								2				
	인터넷 중앙SUNDAY	2	2							1					1
	인터넷 청년의사	4	4							2			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	3							3					
	인터넷 한겨레	28	28							7	2	9			10
	인터넷 한겨레21	3	3							3					
	인터넷 한남일보	4	4							3					1
	인터넷TheKoreaHerald	2	2												2
	인터넷강원일보	2	2							2					
	인터넷경남도민신문	1	1							1					
	인터넷경남도민일보	4	4												4
	인터넷경남매일	5	4	1						4		1			
	인터넷경남신문	5	4						1	1		2			2
	인터넷경남연합일보	1	1							1					
	인터넷경남일보	2	2									2			
	인터넷국제신문	3	2	1						1			1		1
	인터넷내일신문	2	2							1					1
	인터넷놀이신문	2	2							2					
	인터넷동양일보	1	1							1					
	인터넷 메트로	2	2												2
	인터넷 문화일보	9	9							3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인터넷 미디어오늘	17	17							7		7			3
	인터넷부산일보	4	3	1							1	1			2
	인터넷서울일보	1	1							1					
	인터넷아시아일보	2	2												2
	인터넷안산타임스	1	1							1					
	인터넷인천일보	3	3							1		2			
	인터넷일간뉴스경남	1	1												1
	인터넷주간동아	1	1							1					
	인터넷중부매일	3	3									2			1
	인터넷중부일보	10	9	1						5		2			3
	인터넷창원일보	2						2							2
	인터넷충청매일	3	3							2		1			
	인터넷충청일보	2	1	1						1					1
	인터넷충청타임즈	3	3							2					1
	인터넷충청투데이	5	4			1				3					2
	인터넷한국농정	2	2									2			
	인터넷한국일보	14	12	1			1			4		1		1	8
	인터넷한라일보	2	2							2					
	인터넷헤럴드경제	12	8	2			2			6			1		5
	조선닷컴	65	57	4			4			18	4	20	2		21
	쿠키뉴스	14	11	1			2			3	1	2	3		5
	프라임경제	2	2							2					
	한경닷컴	16	14				2			5					11
	인터넷주간한국	3	3							3					
	아이피디저널(IPD저널)	3	3							3					
	인터넷 전국매일	2	2							1	1				
	인터넷 삼군신문	2	2							2					
	인터넷 기자협회보	1	1							1					
	인터넷 전남매일	1	1												1
	인터넷 무등일보	1	1							1					
	인터넷 강화뉴스	2	2									2			
	인터넷 담양신문	1	1								1				
	인터넷 장성사람들	1	1												1
	인터넷 성남도시신문	1	1									1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인터넷 자치안성신문	2	2							2					
	경기북부인터넷뉴스	2	2								2				
	인터넷울산광역시매일	5	5							3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2	2												2
	인터넷 신안신문	1	1							1					
	e머니위크	1	1											1	
	인터넷민주신문	2	2							1	1				
	인터넷 수산신문	2	2							2					
	인터넷 신동아	4	4							4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2	2							2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	2	2							2					
	인터넷 경기신문	3	3							1		2			
	인터넷 기호일보	2	2									2			
	인터넷 경북일보	2	2							2					
	인터넷 성동저널	2	2									2			
	인터넷 기독교신보	2	2										2		
	인터넷 스포츠동아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1		1											1
	대전일보닷컴	1		1											1
	인터넷 나무신문	2	2							2					
	인터넷 스포츠한국	1				1									1
	인터넷 여주시민신문	2	2							1		1			
	소계	945	799	63		19	61	2	1	348	49	157	18	5	368
인터넷 뉴스 서비스	네이버	118	89	8		10	11			11		2			105
	네이트	65	56	5		1	3			9					56
	다음	98	79	6		8	3	2		7			1	1	89
	드림위즈	1	1												1
	모네타뉴스	2		2						1					1
	야후	18	17	1						2					16
	조인스엠에스엔	2	2							2					
	줌닷컴	6	6							2					4
	파란	1	1												1
	iKNN	1	1												1
	iMBC	35	32	2			1			11	5	8	1		10
	KBS i	36	33	2			1			9		7	2		18
	SBSi	12	10	1			1			4		2	1		5
	와우넷	5	4			1				3		1			1
	인터넷 BBS불교방송	1	1							1					
	인터넷 TV조선	9	8	1						3	2	3			1
	인터넷 소비자TV	3	3							3					
	인터넷 채널A	3	3								1				2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jtbc	11	10		1					6					5
	인터넷 MBN	13	9	4						7					6
	인터넷 YTN	11	10		1					3	2	1			5
	인터넷 엠비씨에브리원	1		1											1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	1												1
	인터넷 KBS drama	1	1												1
	소계	454	377	33	2	20	20	2		84	10	24	5	1	330
	계	2,401	2,110	128	8	43	101	10	1	805	142	427	44	11	972

11.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73.6%, 지역은 65.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제3중재부의 신청효율이 84.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강원 중재부와 제주 중재부가 각각 81.8%의 신청효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조정성공률은 광주 중재부가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제3중재부(82.2%) 강원중재부(81.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재부의 경우 지역 중재부에 비해 취하되는 사건의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서울의 경우,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142건 중 약 73.9%인 105건이 서울 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재부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광주 중재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0	서울1	258	41	48	8			34		127 (109)	91.8	100.0	88.4
	서울2	234	85			11		17		121 (104)	88.5	91.7	87.1
	서울3	241	75	12	3 (2)	5		16	1	129 (113)	91.6	95.2	90.2
	서울4	225	32	8	12	10 (1)		3		160 (136)	64.5	92.6	79.7
	서울5	215	27	10	2	24		6		146 (104)	58.7	76.9	67.5
	서울6	238	74	23	1	6		9		125 (92)	93.3	95.1	82.5
	서울7	216	27	1		20		40		128 (101)	58.3	74.7	73.3
	소 계	1,627	361	102	26 (2)	76 (1)		125	1	936 (759)	81.9	90.7	81.6
	부산	59	13			13		1		32 (19)	50.0	56.7	55.2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대구	31	16				8	(1)	2		5	(1)	66.7	68.0	62.1
	광주	77	20	3	4		18	(2)	1		31	(14)	51.1	69.5	51.3
	대전	42	29						5		8	(4)	100.0	100.0	89.2
	경기	120	44		2		17				57	(48)	69.8	78.5	76.7
	강원	28	9				15	(1)			4	(4)	37.5	40.0	50.0
	충북	35	23				4		3		5	(3)	85.2	86.2	81.3
	전북	49	22				5				22	(14)	81.5	85.7	73.5
	경남	89	57	4	8						20	(14)	88.4	100.0	84.3
	제주	48	36				1				11	(11)	97.3	97.6	97.9
	소 계	578	269	7	14		81	(4)	12		195	(132)	74.4	81.8	72.3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서울1	179	61	20	6	(1)	31		7	2	52	(28)	68.6	76.0	64.7
	서울2	163	68	4			14		13	4	60	(32)	83.7	86.5	71.2
	서울3	303	93	4	5	(2)	13				188	(162)	84.3	92.3	86.1
	서울4	334	139	8	4		39		1	2	141	(121)	77.4	82.6	81.0
	서울5	143	29	9	2		38				65	(39)	48.7	64.8	53.8
	서울6	165	68	3	10		15		2	2	65	(30)	74.0	88.1	62.7
	서울7	178	38	1	1		49		11	2	76	(55)	43.8	56.6	57.0
	소 계	1,465	496	49	28	(3)	199		34	12	647	(467)	70.6	79.5	71.5
	부 산	36	12	1			5				18	(6)	72.2	84.4	52.8
	대 구	26	5				6			2	13	(8)	45.5	66.7	54.2
	광 주	49	12	3	3		19				12	(2)	40.5	50.0	34.7
	대 전	33	16				11				6	(4)	59.3	63.3	60.6
	경 기	118	59		2		22		2		33	(23)	71.1	75.0	70.7
	강 원	18	8		1		5		2		2	(2)	57.1	68.8	62.5
	충 북	47	24	2	1		10		4		6	(2)	70.3	76.2	65.1
	전 북	28	10	4			4				10	(4)	77.8	83.3	64.3
	경 남	174	65	6	5						98	(62)	93.4	100.0	76.4
	제 주	130	18				4		2		106	(100)	81.8	91.3	92.2
	소 계	659	229	16	12		86		10	2	304	(213)	71.4	82.6	70.8
	계	2,124	725	64	41	(3)	285		44	14	951	(680)	70.8	81.7	71.3
2012	서울1	253	64	4			78	(8)	7	5	95	(84)	46.6	58.1	66.4
	서울2	223	71	6	4		37		9		96	(66)	65.3	78.9	66.8
	서울3	314	114	6	1		25		3		165	(144)	82.2	87.7	84.9
	서울4	285	76	6	3		24			1	175	(141)	75.2	86.5	78.5
	서울5	246	73	18	24		49		4	1	77	(72)	55.5	73.2	67.6
	서울6	238	86	8	4		45		1		94	(79)	65.7	76.7	73.0
	서울7	224	65	1	13		36	(2)	12	4	93	(81)	57.4	75.7	71.6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2	서울8	49	8	5	2		7		3		24	(23)	59.1	74.1	78.3
	소 계	1,832	557	54	51		301	(10)	39	11	819	(690)	63.4	76.7	73.6
	부 산	50	17	2			7		4		20	(11)	73.1	80.0	65.2
	대 구	29	15				6				8	(4)	71.4	76.9	65.5
	광 주	92	49	8	4		7				24	(16)	83.8	90.0	79.3
	대 전	53	24		10		6				13	(13)	60.0	85.0	69.8
	경 기	119	43	3			43				30	(22)	51.7	60.2	57.1
	강 원	11	9				2						81.8	81.8	81.8
	충 북	55	23				16				16	(9)	59.0	60.0	58.2
	전 북	47	18	9			13		1		6	(1)	67.5	68.3	60.9
	경 남	80	27		1		20				32	(17)	56.3	66.7	55.0
	제 주	33	23				6				4	(4)	79.3	79.3	81.8
	소 계	569	248	22	15		126		5		153	97	65.7	72.6	65.1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취하 41.2%, 조정성립 30.2%, 조정불성립결정 19.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9%, 기각 2.0%, 각하 0.4% 순으로 집계되었다. 예년에 비해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6.9%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증가한 것(14.9%→19.4%)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정정보도와 일괄적으로 합의되거나 조정불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0. 1. 1. ~ 2012. 12. 31.)

연 도	구 분	전체 청구건수	손해배상사건수	비율(%)
2010		2,205	773	(35.1)
2011		2,124	804	(37.9)
2012		2,401	794	(33.1)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조 정 성공률	본 안 성공률
2010	773	218	24	18[1]	56[1]	38		419[344]	76.6	87.1
	(100)	(28.2)	(3.1)	(2.3)	(7.3)	(4.9)		(54.2)		
2011	804	255	18	16[1]	100	12	7	396[290]	70.2	81.6
	(100)	(31.7)	(2.2)	(2.0)	(12.4)	(1.5)	(0.9)	(49.3)		
2012	794	240	27	28	153[2]	16	3	327[274]	59.6	72.4
	(100)	(30.2)	(3.4)	(3.5)	(19.3)	(2.0)	(0.4)	(41.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2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7,4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상담단계에서 적절한 안내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50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90만 원이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중재위원 5인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채택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는 침해법의 내지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의 양태나 내용,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 산정표를 2012년 2월까지 시범 적용하였고, 이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단위 : 원)

구 분 연 도	청 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2011	100,000	50,000,000,000	279,208,198	20,000,000
2012	10,000	3,418,600,000	74,250,871	3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단위 : 원)

구 분 연 도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10	150,000	20,000,000	2,739,744	1,000,000
2011	100,000	20,000,000	2,147,826	1,350,000
2012	300,000	10,000,000	1,895,000	1,5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단위 : 조정건수)

구 분 연 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합 계
2010	9 (31.0)	11 (37.9)	7 (24.1)	1 (3.4)	1 (3.4)	29 (100.0)
2011	15 (31.3)	20 (41.7)	10 (20.7)	2 (4.2)	1 (2.1)	48 (100.0)
2012	9 (16.7)	17 (31.5)	25 (46.3)	1 (1.9)	2 (3.6)	54 (100.0)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최저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A언론사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할인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B와 신청인 B의 자녀 C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 B와 C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기사를 삭제하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최고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A언론사는 정보당국의 전언을 근거로 모 국가 대통령의 딸과 신청인 B가 결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중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 신청인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5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175만 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 원, 최저 30만 원, 평균 132만 원,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2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125만 원 정도였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최고 1,000만 원, 최저 300만 원, 평균 475만 원이었다. 특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고액과 평균액 등이 다른 침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례 2]와 같은 사건이 여러 언론사에 신청되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조정성립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6]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2. 1. 1. ~ 2012. 12. 31. 단위 :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6	500,000	5,000,000	1,750,000	2,000,000	1,000,000
초상권침해		19	300,000	3,000,000	1,320,000	1,500,000	500,000
음성권침해		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성명권침해		3	500,000	2,000,000	1,250,000	1,500,000	2,000,000
사생활침해		5	3,000,000	10,000,000	4,750,000	2,000,000	3,000,000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118건, 사생활 침해 62건, 성명권 침해 43건, 음성권 침해 8건, 재산상 손해 4건,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2.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558 (100)	209 (37.5)	40 (7.2)	146 (26.2)	6 (1.1)	2 (0.4)	155 (27.6)
초상권 침해	118 (100)	16 (13.6)	8 (6.8)	4 (3.4)	9 (7.6)	1 (0.8)	80 (67.8)
음성권 침해	8 (100)	3 (37.5)		1 (12.5)	1 (12.5)		3 (37.5)
성명권 침해	43 (100)	1 (2.3)	2 (4.7)				40 (93.0)
사생활 침해	62 (100)	11 (17.7)	5 (8.1)	2 (3.2)			44 (71.0)
재산상 손해	4 (100)						4 (100)
기타	1 (100)						1 (100)
계	794 (100)	240 (30.2)	55 (6.9)	153 (19.3)	16 (2.0)	3 (0.4)	327 (41.2)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의 신청이 총 57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기관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전혀 없는 이유는 정정이나 반론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당사자 능력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8]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2. 12. 31)

구 분 신청인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인	575 (100)	160 (27.8)	41 (7.1)	79 (13.7)	15 (2.6)	3 (0.5)	277 (48.3)
국가기관							
지자체	7 (100)	4 (57.1)		2 (28.6)			1 (14.3)
공공단체	11 (100)	1 (9.1)		6 (54.5)			4 (36.4)
일반단체	76 (100)	29 (38.2)	4 (5.3)	31 (40.8)	1 (1.3)		11 (14.5)
종교단체	2 (100)	1 (50.0)		1 (50.0)			
기업체	87 (100)	36 (41.4)		20 (23.0)			31 (35.6)
언론사	30 (100)	7 (23.3)	10 (33.3)	12 (40.0)			1 (3.4)
교육기관	6 (100)	2 (33.3)		2 (33.3)			2 (33.3)
계	794 (100)	240 (30.2)	55 (6.9)	153 (19.3)	16 (2.0)	3 (0.4)	327 (41.2)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건수는 시행 첫해인 2005년 48건에서 출발해 매년 꾸준히 늘었으며, 2010년 567건을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705건, 2012년에는 9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체 청구건수의 5.4%에 불과했으나 2010년 25.7%, 2011년 33.2%, 2012년 39.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²⁾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공률 (%)	본 안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567	190	12	14	29[2]	43		279[219]	82.4	90.6	80.7
	(100)	(33.5)	(2.1)	(2.5)	(5.1)	(7.6)		(49.2)			
2011	705	230	22	19[1]	81	10	4	339[254]	71.6	82.4	73.4
	(100)	(32.7)	(3.2)	(2.7)	(11.5)	(1.4)	(0.5)	(48.0)			
2012	945	348	26	23	157[4]	18	5	368[310]	67.5	76.5	74.6
	(100)	(36.8)	(2.8)	(2.4)	(16.7)	(1.9)	(0.5)	(38.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관련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및 방송사닷컴)도 조정·중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에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청구건수는 18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8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이후 2011년 510건, 2012년 45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포털에 대한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은 주요 포털사들이 주로 아웃링크 방식³⁾으로 뉴스를 게재하는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의 아웃링크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언론제공사가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한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포털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보다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란, 야후 등 주요 포털사들이 각각 2012년 7월 말과 12월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뉴스서비스도 함께 중단한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조정 성립	처 리 결 과						조 정 성공률 (%)	본 안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동 의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841	77	69	6[2]	13	48		628[555]	88.5	95.8	88.7
	(100)	(9.2)	(8.2)	(0.7)	(1.5)	(5.7)	628	(74.7)			
2011	510	150	10		38		1	311[288]	80.8	87.1	88.0
	(100)	(29.5)	(1.9)		(7.5)		(0.2)	(60.9)			
2012	454	84	4	6	24	5	1	330[290]	74.6	89.8	84.4
	(100)	(18.5)	(0.9)	(1.3)	(5.3)	(1.1)	(0.2)	(72.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012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을 처리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취하가 33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조정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

3)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언론사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됨

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한 다수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84건(18.5%), 조정불성립결정 24건(5.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0건(2.2%) 등의 순이었다.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2005년 중재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 중재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2년 처리된 중재사건 59건 중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에 대한 중재건수가 51건(86.4%)이었고, 신문 등 기존 매체에 대한 건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2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59건 중 56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초상권 침해가 3건 있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기 타
2010		77	76						1
2011		113	112		1				
2012		59	56		3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정청구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론청구가 16건, 추후청구가 7건, 손해청구가 5건을 차지했다. 총 59건의 중재사건 모두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정 정	35	34		1	
		반 론	28	28			

2010	추후	12	12				
	손배	2	2				
	계	77	76		1		
2011	정정	63	60			3	
	반론	27	24			3	
	추후	12	12				
	손배	11	11				
	계	113	107			6	
2012	정정	31	31				
	반론	16	16				
	추후	7	7				
	손배	5	5				
	계	59	59				

3. 매체 유형별 현황

2012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1건으로 8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및 잡지 순이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사를 단순히 매개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중재신청의 특징은 단독 신청이 아닌,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리결과 면에서도 기사제공언론사의 조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중재신청에 사전 합의하는경우가 많다.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2010	77	54	12	7	3	1	
2011	113	99	8	3	2	1	
2012	59	51	4		1	2	1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2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64건이었다. 그 중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이 10건, 취하가 11건, 기각, 각하가 20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23건이다.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동아닷컴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4건, iMBC, MBC-TV, 인터넷 경향신문이 모두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건 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인			1 심 결 과			
		정 정	반 론	손 배	추 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2010	40	20	1	18	1	7	31	2	20	8	12	0
2011	38	23		15		6	30	2	16	11	5	6
2012	64	33	3	28		26	28	10	10	11	20	23
계	142	76	4	61	1	39	89	14	46	30	37	29

※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

[표 7-2] 2012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2012. 1. 1. ~ 2012. 12. 31)

매 체 유 형	매 체 명	건 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인			1 심 결 과			
			정 정	반 론	손 배	추 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2	1		1		2						2
	동아일보	4	2		2		2		2				4
	조선일보	2	1		1			2		1		1	
	한겨레	2	1		1		2					2	
지역 일간지	대전투데이	2	1		1		2			1		1	
	충남일보	2	1		1		2			1		1	
	충민일보	2	1		1		2			1		1	
	전국매일	1	1					1			1		
무료일간지	이데일리	1			1			1			1		
중앙방송	KBS-TV	2	1	1				2					2
	MBC-TV	3	2		1			1	2				3
종합편성 채널	MBN	1			1			1				1	
	TV조선	2	1		1			2		1		1	
	채널A	2	1	1				2			2		
시사주간 신문	중앙매일	2	1		1		2			1		1	
	충청신문	2	1		1				2	1		1	
특수주간 신문	전기신문	2	1		1		2					2	
	덴탈포커스	2	1		1			2					2
인터넷 신문	인터넷 덴탈포커스	2	1		1			2					2
	인터넷 이데일리	1			1			1			1		
	통영 인터넷뉴스	1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인터넷 신문	동아닷컴	5	3		2		2	1	2		2		3
	이투데이	1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3	1	1	1		3				1		2
	인터넷 전기신문	2	1		1		2					2	
	인터넷 한겨레	2	1		1		2					2	
	조선닷컴	2	1		1			2		1		1	
	인터넷 전국매일	1	1					1			1		
인터넷 뉴스서비스	경기북부인터넷뉴스	2	1		1			2		1		1	
	iMBC	3	2		1			1	2				3
	인터넷 TV조선	2	1		1			2		1		1	
	인터넷 채널A	1	1					1			1		
	계	64	33	3	28		26	28	10	10	11	20	23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조 정

(1981.3.31. ~ 2012.12.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42.9	39.0	
1982	50	19			19 (5)		2	10 (4)	50.0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48.8	52.2	
1984	54	12			29 (8)	3		10 (5)	29.3	49.0	
1985	59	12			28 (5)	4		15 (7)	30.0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8.3	56.3	
1987	47	10			9 (4)	1		27 (2)	52.6	34.8	
1988	55	16			12 (5)		1	26 (13)	57.1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45.3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49.4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52.0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0.6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7.9	56.2	
1994	541	162			127 (10)	7	24	5 (128)	56.1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42.5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42.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7.1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69.2	59.6	
1999	641	244	11	1 (2)	102 (17)	24	5	237 (92)	68.0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72.0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0.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71.7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72.2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7.0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4.5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3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2.8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5.5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82.6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1.5	
계	20,621	6,810	565	414 (32)	3,350 (287)	787	112	8,583 (5,361)	66.2	64.7	
	100.0%	33.1%	2.7%	2.0%	16.3%	3.8%	0.5%	41.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005.7.28. ~ 2012.12.31.)

연 도	구 분	종 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계		391	338	46	1	6
		100.0%	86.4%	11.8%	0.3%	1.5%

2012년도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2012년에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정권고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11월 제정한 '시정권고 결정문 등의 송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해오고 있다.

1. 침해 유형별 분석

개인적 법익 침해의 시정권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100건에서 40건으로, 사생활 침해가 36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더해, 위원회가 지속적인 시정권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적 법익 침해의 자살관련 보도가 2011년 189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감소한 것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회적 법익 침해의 마약 및 약물보도는 전체 시정권고 건수의 44.8%를 차지하며 작년의 22.3%와 비교해 2배나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시정권고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약 및 약물보도의 시정권고 건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은,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 관련 보도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보도로 인하여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권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및 약물보도가 116건(44.8%), 자살 관련 보도가 49건(18.9%),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40건(15.4%), 범죄수법 상세묘사가 40건(15.4%), 기타 나머지 법익침해 보도가 14건(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 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 살 관 련 상세묘사	범죄수법 상세묘사 (기 타)	
2010	284 (100)	2 (0.7)		49 (17.3)	2 (0.7)	10 (3.5)	4 (1.4)	199 (70.1)	18 (6.3)	
2011	426 (100)	2 (0.5)		100 (23.5)		36 (8.5)	95 (22.3)	189 (44.4)	4 (0.9)	
2012	259 (100)	5 (1.9)	3 (1.2)	40 (15.4)		5 (1.9)	116 (44.8)	49 (18.9)	41 (15.8)	

*()안의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분석

2012년 한 해 동안 내려진 259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60건(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74건(28.6%), 뉴스통신 21건(8.1%), 주간지 3건(1.2%), 월간지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 분 총 계	일 간 지		처 리 결 과				
				월간지	주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 송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2010	284 (100)	22 (7.7)	74 (26.0)	5 (1.8)	14 (4.9)	20 (7.0)	149 (52.4)	
2011	426 (100)	46 (10.8)	60 (14.1)	1 (0.2)	20 (4.9)	41 (9.6)	253 (59.3)	5 (1.2)
2012	259 (100)	51 (19.7)	23 (8.9)	1 (0.4)	3 (1.2)	21 (8.1)	160 (61.8)	

*()안의숫자는 %

[표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2. 12. 31.)

연도	구 분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 간 지	주 간 지	월 간 지	뉴 스 통 신	인 터 넷 신 문	방 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 살 관 련 상세묘사	범죄수법 상세묘사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009	253		1	97	6	15		93	41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18			96	14	5	20	149	
2011	426	2		100		36	95	189	4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3	40		5	116	49	41			74	3	1	21	160	
계	6,699	726	137	2,112	1,041	355	1,219	855	254			5,269	149	23	353	868	37
	100.0%	10.8%	2.1%	31.5%	15.5%	5.3%	18.2%	12.8%	3.8%			78.7%	2.2%	0.3%	5.3%	13.0%	0.5%

